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dpark@krihs.re.kr)

KRIHS 국토연구원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선행연구 고찰 09

0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

04 결론 및 정책제언 25

01 서론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는 지역사회와의 사회문화 단절과 더불어 긍정적인 롤 모델의 결여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의식과 태도, 거주지역 간의 공간적 단절 등의 생활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됨(Charles 2003; Cutler and Glaeser 1997)
-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계층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빈곤계층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과 함께 심리적 불안,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경제적 곤궁으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교류에도 문제가 발생하곤 함(하성규, 서종녀 2006)

■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어왔음(하성규, 서종녀 2006)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공간 구조 또한 이웃과 교류를 어렵게 만듦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음[1),2),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1)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7010009931 (2023년 11월 20일 검색).
2) 기사의 자료는 2018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집계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2022년까지의 연 단위 수치를 활용함.
3) 해당 자료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살과 고독사가 발생하였음

- 2020년 기준 전체 자살사고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최근 5년간 크게 변화가 없음

표 1 공공임대주택 자살 및 고독사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합계	
	자살	고독사	자살	고독사	자살	고독사	자살	고독사
2018	32	45	8	3	3	2	43	50
2019	45	38	9	2	2	1	56	41
2020	29	39	2	3	2	-	33	42
2021	27	28	10	2	3	1	40	31
2022	35	22	11	6	2	1	48	29
합 계	168	172	40	16	12	5	220	193

자료: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적절한 주거비 부담과 쾌적한 주거생활은 입주자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며 정신건강과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Mason, Baker, Blakely and Bentley 2013; Kottke, Abariotes and Spoonheim 2018)

- 주거의 질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주제이며, 주거환경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는 우울증, 자존감,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관찰됨
- 특히, 우울증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면, 정신적 고통의 극단적인 행위인 자살에 대한 연구는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음
- 기존 문헌에서 주거의 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거주 기간, 재정적 불안정성, 공공주택 거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음(Law, Kõlves and De Leo 2016;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박선영, 이충기 2016; 한수정, 전희정 2018)
- 하지만, 주거환경에 따라 우울증 및 자살행동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거환경과 정신건강의 연관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 및 분석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02 선행연구 고찰

1) 정신건강과 공공주택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정신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여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의 상태"로 정의함(WHO 2005)

- WHO의 정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반면, 정량적 연구자들은 우울(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 2015), 불안(Casciano and Massey 2012), 심리적 고통(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 2018;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 2017) 등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해왔음
  - WHO에서 제시한 광의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히 임상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웰빙과 사회적 기능 및 생산성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
  -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능력, 불안으로부터 자유, 정서적·사회적·심리적 웰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재정적 문제 및 물질적 박탈 등과 관계가 깊은 정신건강 상태인 우울과 자살(Alegría, NeMoyer, Falgàs Bagué and Wang et al. 2018)에 초점을 맞춤

-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Meltzer and Schwartz 2016; Reiss, Meyrose, Otto and Lampert et al. 2019), 마약 및 약물로 인한 정신질환과 신경·행동 또는 학습 장애 등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더욱 복잡함(Üstün and Ho 2017)을 지적함
  -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이러한 정신질환 중 상당수는 장기적인 약물 및 치료 관리를 필요로 하며, 주거비 부담 능력 등의 개선만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판단함

- 하지만 적어도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개인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Coley, Leventhal, Lynch and Kull 2013; Meltzer and Schwartz 2016)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이론적으로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불안 및 우울 증상의 감소로 이어져야 함
  -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행동 및 인지 문제(예: 정신병, 폭력적 행동, 약물 및 음주, 신경인지 장애)의 원인과 결정요인은 본질적으로 더 복잡하며 생물학·정신질환·인지적 질환(Alozai and Sharma 2023, Wu, Kang, Yan and Gao et al. 2018)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 및 유년기 경험(Liu et al. 2013)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건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
  - 따라서 행동 및 인지 문제의 여부나 그 심각성은 주거비 부담 능력의 개선만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커뮤니티 케어, 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선행연구는 주거환경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자와 그 외 그룹들을 비교하였음(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 2018; Boudreaux, Fenelon and Slopen 2018; Casciano and Massey 2012; 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 2015;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 2017; Fenelon, Slopen, Boudreaux and Newman 2018)

- 그룹 간 비교는 민간 주택 부문에서 임대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 자가 소유자,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들은 주거비 부담 능력을 개념화하고 각각 다른 측정 방식을 적용하였음
  - Casciano and Massey(2012)는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이고, 30%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가구, 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2018)은 소득 분포의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를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은 가구로 정의하였음
  - 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2015)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소득 한도를 사용하였으며, Kalousová and Evangelist(2019)는 연간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지원 대상 가구로 간주함
- 다른 방식의 주거비 부담 능력 측정과 적용은 여러 연구 결과들이 공공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을 개선하였는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한편, 공통적으로는 연구의 대상자들이 다양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와 상황에 따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 능력의 측정과 적용 방식의 다양함은 다른 연구 간 비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한하기도 함

■ 선행연구는 정신건강에 대해 불안 및 우울 정도를 주로 측정하였으며, 개념화와 적용 방식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였음((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 2018; Casciano and Massey 2012; 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 2015;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 2017; Fenelon, Slopen, Boudreaux and Newman 2018; Fertig and Reingold 2007; Kalousová and Evangelist 2019)

- 정신건강에 대한 측정은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심리적 고통, 정서적 어려움, 정신건강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였음
  - 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2018)과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2017)이 사용한 "심리적 고통"이라는 표현은 우울증과 일반적인 불안 증상부터 성격의 특성, 기능 장애, 행동 문제까지 다양한 증상을 세분화하고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장애와 상태를 설명함
  - Fenelon, Slopen, Boudreaux and Newman(2018)이 측정한 "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 정서적 문제"에는 걱정과 불행에 대한 응답, 우울증과 불안을 가진 아동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과 증상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음
-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는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이나 원인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예를 들면, 지난주의 감정에 대한 질문들(Casciano and Massey 2012; Fertig and Reingold 2007; Kalousová and Evangelist 2019)은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4)]
  - 또한, 여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증상이 사회·경제적 문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외상, 기타 스트레스(예: 이혼, 실직, 가족의 사망)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주택의 거주효과, 즉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논의하고, 연구 결과의 비교 및 신뢰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줌

■ 특히, 공공주택과 정신건강에 대한 많은 경험적 증거들은 대부분 횡단 자료를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졌음(Casciano and Massey 2012; 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 2015;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 2017; Fenelon, Slopen, Boudreaux and Newman 2018)

4) 예를 들어 우울증은 산후 우울증, 주요 우울증, 지속성 우울 장애로 더 세분화할 수 있음.

- 횡단면 연구는 설계상 사건의 순서, 시간적 관계, 증감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Wang and Cheng 2020)에 공공주택 거주에 대한 효과와 우울 및 불안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결과 변수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파악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 불충분함(Ejima, Li, Smith Jr and Nagy et al. 2016)
  - 일부 종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지만, Kalousová and Evangelist(2019)의 연구를 제외한 연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거비 부담 능력, 근린의 특성, 신체건강 및 주거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포착하지는 못하였음
  - 이러한 요소들은 삶의 질을 포함한 웰빙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Meltzer and Schwartz 2016)
- 공공주택의 거주로 주거비 부담 능력 및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개선으로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문헌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며,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구원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재화 및 서비스(예: 병원 방문, 건강검진 등)를 주거비의 감소를 통해 주거비에서 남은(leftover) 비용으로 지불하는지(박기덕 2020)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함
  - Bentley, Baker, Simons and Simpson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다른 민간주택시장 및 바우처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정신 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였음
  -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2017), Fenelon, Slopen, Boudreaux and Newman(2018)은 공공의 보조금을 받는 임대주택이 아동과 성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밀집된 공공주택 지역의 사회적 지원 및 자원의 밀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음
- 여러 상반된 결과들이 선행연구에서 도출되었는데, Kalousová and Evangelist(2019)는 주택 바우처(Section 8), 공공지원 민간임대(Project Based Section 8) 이용자와 (자격을 갖춘) 비수혜자 간에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지만, Garg, Burrell, Tripodis and Goodma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바우처 이용자의 정신건강 개선과 그 증거를 주장하였음
  - Fenelon, Mayne, Simon and Rossen et al.(2017)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신체활동, 가족 간 스트레스 완화, 건강 보험 및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등 여러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함을 주장함
  -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공공주택의 저렴한 주거비와 건강상태 및 웰빙과 관련된 메커니즘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자가 소유의 주거 안정성, 재정적 풍요로움, 통제감,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의 역할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Manturuk 2012)

2) 주거환경과 우울증

■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불편함과 고통을 유발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셀그리만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Seligman 1972)이 주거환경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기반하는 고가의 재화이므로 쉽게 그 환경을 바꾸거나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은 학습된 무력감의 전제 조건이 됨

■ 기존 문헌에서 우울증과 주거환경 간의 상관관계와 거주 기간, 주거 관련 재정적 부담, 주택의 공간적 배경, 주택의 질이 우울증에 주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음

- 특히 주택 거주 기간과 주택 관련 재정적 부담은 일관적으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한수정, 전희정 2018), 자가 소유자는 임차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건강 수준을 보였으며, 주택 대출 이자의 비율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임(Lee, Park, Kim and Kim et al. 2016)
  - 주택 소유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Howden-Chapman, Chandola, Stafford and Marmot 2011)는 점에서 연령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 고령층의 우울 증상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음(박선영, 이충기 2016)
- 주거환경의 공간적 배경은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우울증과 관련이 있지만(Kim 2008), 여러 연구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종단 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일관되지는 않음(Richardson, Westley, Gariépy and Austin et al. 2015)
  - 범죄 및 안전과 같은 근린의 사회적 환경은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편의시설 접근성 및 보행 가능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Barnett, Zhang, Johnston and Cerin 2018; Domènech-Abella, Mundó, Leonardi and Chatterji et al. 2020)
  -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와 함께, 근린환경의 특성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 우울증에 대한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Beck, Davidson, Xu and Durfee et al. 2017)
- 하지만, 주거의 기능적·구조적 문제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하고, 이러한 주거환경의 수준은 우울증 및 정신적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김승

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최병숙, 박정아 2012)

-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소음, 채광,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과밀 및 주택의 구조적 결함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린환경의 특성 및 주거환경은 저소득층 가구의 정신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Chambers, Fuster, Suglia and Rosenbaum 2015)

- 주택의 유지·관리의 부족과 낮은 사회적 응집력이 우울증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주택 및 근린환경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린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Kalousová and Evangelist 2019), 무질서와 폭력에 대한 근린환경에 대한 노출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였음
  - Casciano and Massey(2012)도 중산층 지역의 공공주택 입주자가 비교 그룹보다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근린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 미국 섹션 8 바우처의 도입은 삶의 질과 웰빙의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근린 및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결과이기도 함(Freeman and Li 2014)
  - 바우처 프로그램은 가구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론적으로 가구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지역보다 좋은 품질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지만, 주택 보조금 및 바우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발견함
  - 임대인들의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바우처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을 임대하지 못한다는 실증적 증거도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의 존재가 주택 보조금과 바우처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주거환경의 국가 및 지역적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한 모형을 통해 정신건강의 영향을 분석해야 함

3) 주거환경과 자살

■ 자살행동의 위험요인은 우울증, 건강상태, 만성질환, 상대적 박탈감, 실업(Pak and Choung 2020) 등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자살행동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최근 근린 및 주거환경이 자살행동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근린환경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유대는 자살과 일관되게 연관이 있음
  - 자살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근린효과가 자살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근린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지, 이웃과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음(Yoon,

Noh, Han, and Jung-Choi et al. 2015; 허지정, 최막중 2013).

- 자살 관련 응급 전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거주자의 교육 수준, 인구 밀도, 1인가구 비율, 고령자 수와 연관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Marco, Gracia, López-Quílez and Lila 2018)도 이를 뒷받침함

• 주택 거주 기간과 주거 불안정성도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인데, 자살생각과 자살률은 자가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빈번하게 발견되었고(Law, Kõlves and De Leo 2016), 퇴거에 대한 두려움과 주거에 대한 상실도 자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임(Stack and Wasserman 2007)

- 하지만, 미국 대도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택 대출의 스트레스와 자살률이 관련이 없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도 있음(Jones and Pridemore 2016)

■ 특히,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판자촌 등 저소득층 집단거주 지역은 자살문제가 심각한 지역(김영욱, 김주영 2016)으로, 입주자의 주거심리,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빈곤세대의 집단주거지로 분류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며, 음주문제, 부족한 이웃관계망, 주민의식 부족, 불결한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부정적 환경 요소들은 자살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예상됨(이경온 2011; 강정희, 박범종 2012)

•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독거세대의 높은 비율과 자활보조자, 의료보조자, 보훈대상자, 최하위 1분위 해당자 등 도시빈곤계층으로 특징지어지는 입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사회배제의 심화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4) 정신건강의 영향요인과 메커니즘

■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은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음

• Phillips, Siu, Anthony and Cheng(2005)은 고령층의 표본을 통해,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거 만족도가 주거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즉,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가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 만족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함

-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가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많은 연구로부터 이미 확립(Ren and Folmer 2017)되어 있으며, 주택의 객관적인 속성은 주거 만족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음(Amérigo and Aragones 1997)

- 주거 만족도와 우울증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지만, 주거 만족도와 우울증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거 만족도가 주거환경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음(Liu, Lewis and Evans 2018)
-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및 주거의 질, 그리고 주거 만족도 및 정신건강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합된 모형 구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

• 주거환경과 정신건강의 잠재적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연구 역시 많지 않음

–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인구 과밀이 여성의 우울증 수준을 높이고 집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sense of home)을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공격성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으며(Perreault, Riva, Dufresne and Fletcher 2020; Regoeczi 2008), 주거 질의 향상과 자가 소유가 남성의 남성성, 자존감, 사교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음(Meth and Charlton 2017)

-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예: 후각, 소음, 시각)과 감각적 고통에 대한 지각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Sorokowski, Karwowski, Misiak and Marczak et al. 2019), 이는 남성과 여성이 환경의 감각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성별에 따른 주거의 질과 환경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차이로 설명하기도 함(Maji 2018)

■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정책이 비교적 불완전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공공주택과 입주자의 정신건강 관련 경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가구형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 특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주거 만족도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여 우울증 및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분석함

- 주거환경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고층 아파트 또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Garnham and Rolfe 2019),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대부분 횡단 데이터로, 주택환경과 우울증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부 선행연구에서 자살행동과 관계가 있는 주거환경의 특성으로는 소음, 환기, 대기오염, 과밀 등을 제시하였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자살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음
-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자살사고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과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하여 제한된 지식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0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1) 개요

■ 주택관리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살사건 발생 현황

- 영구임대주택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과 독거가구의 자살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층을 포함한 특정 연령층과 1인가구를 포함한 특정 가구형태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지를 중심으로 분석 모형을 구성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총 자살사고 건수는 121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에서 74건(61.1%)이 발생하였음
  - 1인가구에서 전체 자살사고 건수의 53.7%인 6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자살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세 미만	3	5	6	14
40~59세	10	9	14	33
60세 이상	20	26	28	74
합 계	33	40	48	121

자료: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살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인가구	16	22	27	65
2인가구	13	11	13	37
3인가구	4	7	8	19
합 계	33	40	48	121

자료: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표본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차에 걸친 인구집단 기반 조사인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종단 분석모형을 구성함

-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가구의 정의 질을 조사하기 위해 표본의 약 50%를 저소득 가구(전국 중위소득 60% 이하)에 할당하였고, 조사대상 표본 가구는 17개 시·도, 243개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분포함(정은희, 신재동, 우선희, 하은솔 외 2022)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살생각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개인 전수를 분석에 사용함[5)]
  - 우울 정도를 측정할 변수로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역학연구센터의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음(Kohout, Berkman, Evans and Cornoni-Huntley 1993)[6)]
  -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10개 항목의 합산 값을 사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5)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는 자살생각 이외에 자살시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응답 수가 매우 적어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으며, 실제 자살에 대한 데이터는 구득할 수 없는 한계로 자살생각에 대한 문항을 사용했음.
6) 우울 증상의 네 가지 측면(즉, 우울한 정동, 긍정적인 정동, 신체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을 포착하고 측정항목은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의 축약된 11개 항목은 설문조사 참여자가 설문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노인이나 허약자를 포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됨.

표 4 변수 구성과 설문 문항

변수 구분	설문 문항	코딩의 구성
자살생각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오=0, 예=1
우울감 지수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1, 가끔 있었다(일주일에(1~2일간)=2,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3,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4. 11개 항목의 합산값 (최소값=11~최대값=44),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높음
자아존중감 지수	조사시점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각 문항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7) 대체로 만족, 8)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10)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 10개 항목의 합산값 (최소값=10~최대값=40), 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높음
가구형태[7]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수, 가구형태	1인가구=0, 단독자녀가구(배우자 없으며 가구원 2인 이상)=1, 부부가구(배우자 있으며 가구원 2인이고, 가구주 본인 또는 배우자)=2, 부부자녀가구(배우자 있으며 3인 이상 가구)=3
연령층	태어난 연도, 월	고령층(60세 이상)=0, 청년층(19세~39세)=1, 중·장년층(40세~59세)=2
성별	성별	여=0, 남=1
가족관계 만족도	귀하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사회적 관계 만족도	귀하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주거환경 만족도	귀하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건강상태	작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건강하다=5

지역구분	7개 권역별 지역구분	서울+수도권=0, 그 외 지역=1
장애 여부	장애 종류	비해당(비장애인)=0, 장애인=1
교육수준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하=1, 대학교육 경험 이상=2
고용상태	근로유형	미취업자=0, 근로자 및 종사자=1
월평균 개인 가처분소득	연간 가처분소득, 가구원 수	월간 가처분소득/가구원 수
음주정도	조사시점 기준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마시지 않는다=0, 월 1회 이하=1, 월 2~4회=2, 주 2~3회=3, 주 4회 이상=4

자료: 한국복지패널 설문지와 코딩북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주거환경에 관련된 변수로는 주거환경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거주지역(수도권 및 비수도권) 등이 포함됨

- 개인의 특성으로는 성별, 장애 여부, 교육수준, 고용상태,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이 포함됨
-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음주정도 등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통제 변수들은 정신건강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택함
  - 연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장년(40~60세 사이)의 정의를 활용(Encyclopedia Britannica)하여, 청년층(19~39세), 중·장년층(40~59세), 고령층(60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연령층 간 가구형태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보기 위해 그룹 간 t-test 분석을 실행하였고,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종단 연구의 주요 장점은 횡단 연구로는 불가능한, 동일한 개인을 장기간에 걸쳐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에 대한 랜덤효과 회귀 모형과 자살생각에 대한 랜덤효과 로짓 모형을 구축함
  - 고정효과 모형은 개인 간 변이를 무시하고 개인 내 변이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계열 기간 동안 각 패널 개체의 종속변수 값이 일정한 패널 개체[8]들은

7)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수, 단독가구 및 조손가구 유무를 알 수 있는 가구형태변수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없고 단독가구이며 가구주인 경우 1인가구, 배우자가 없이 가구원 2인 이상인 경우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단독자녀가구, 배우자가 있으면서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는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고 가구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부부자녀가구로 구분함.
8) 시계열 기간 동안 자살생각의 문항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개체.

분석에서 제외하며,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시간불변 요인인 성별의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함

2) 분석 결과

■ 〈표 5〉는 표본(N = 3,064)의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과 우울의 정도는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의 자살생각 비율은 청년층의 자살생각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음

- 자아존중감 지수도 연령층이 감소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고령층에서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지수를 보였음
  -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역시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만족도와 건강상태는 저하하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반면에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청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응답하였음
  -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은 고령층(약 77만 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약 98만 원)과 중·장년층(약 99만 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 고령층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많은 비중으로 관찰되었으며, 청년층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중·장년층에서는 부부자녀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고령층에서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은 높은 비율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낮은 근로자 비율, 높은 1인가구 비율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음
  - 청년층에는 단독자녀가구[9]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교육 경험 이상 학력 수준, 낮은 장애인 비율과 높은 근로자 비율을 보였음
  - 중·장년층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거주와 장애인 비율이 관찰되었음

9) 이 연구에서 단독자녀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원 2인 이상으로 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이므로 모두 한부모가구로 볼 수는 없음.

표 5 연구대상의 특징과 연령층에 따른 집단 간 비교

구분		청년층(a) n=437	중장년층(b) n=850	고령층(c) n=1,777	집단 간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a*b	b*c	c*a
자살생각(%)		5.49	9.41	10.52	*	NS	**
우울감 지수		14.75(5.00)	16.62(5.61)	19.28(6.38)	***	***	***
자아존중감 지수		22.70(2.92)	21.79(3.14)	21.02(3.12)	***	***	***
가족관계 만족도		3.71(0.74)	3.49(0.82)	3.28(0.86)	***	***	***
사회적 관계 만족도		3.62(0.69)	3.38(0.80)	3.27(0.77)	***	***	***
주거환경 만족도		3.04(0.92)	3.29(0.86)	3.52(0.75)	***	***	***
건강상태		3.87(0.78)	3.06(1.01)	2.51(0.84)	***	***	***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만원)		98.26(49.94)	99.59(88.43)	77.30(41.56)	NS	***	***
가구형태	1인가구(%)	9.38	32.47	58.53			
	단독자녀가구(%)	78.26	35.88	13.56			
	부부가구(%)	0.69	9.53	24.65			
	부부자녀가구(%)	11.67	22.12	3.26			
성별	여성(%)	58.35	58.94	64.27			
	남성(%)	41.65	41.06	35.73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23	18.47	65.50			
	중학교~고졸 이하(%)	42.79	68.59	29.71			
	대학교육 경험 이상(%)	56.98	12.94	4.78			
지역	비수도권 거주(%)	83.30	76.12	77.43			
	수도권 거주(%)	16.70	23.88	22.57			
장애	장애인(%)	13.04	37.53	34.05			
	비장애인(%)	86.96	62.47	65.95			
근로	근로자(%)	61.78	41.65	9.45			
	비근로자(%)	38.22	58.35	90.55			
음주정도	전혀 마시지 않는다(%)	35.70	60.35	76.87			
	월 1회 이하(%)	17.16	7.18	5.46			
	월 2~4회(%)	30.21	18.35	6.64			
	주 2~3회(%)	11.90	8.94	4.73			
	주 4회 이상(%)	5.03	5.18	6.30			

주: ***p<0.001, **p<0.01, *p<0.05, NS=Not Significant.
자료: 한국복지패널 조사(1차~17차).

■ 〈표 6〉은 주거환경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인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 정도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임

- 우울감 지수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를 낮게 인지할수록(-), 음주를 주 2회 이상 할수록 높게 나타남
  - 또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1인가구일수록, 중·장년층에 비해 고령층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입주자의 고용(된) 상태가 낮은 우울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감 지수, 가구형태, 연령층, 주거환경 만족도,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 음주정도로 나타남
  - 우울감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음
  - 또한, 단독자녀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가, 고령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에 비하여 대학경험 이상의 학력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2회 이상의 음주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입주자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음

표 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모형 1	모형 2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종속변수	우울감 지수	자살생각
우울감 지수	-	0.177*** (0.014)
자아존중감 지수	-0.259*** (0.031)	-0.022 (0.024)
가구형태 (준거집단=1인가구)		
단독자녀가구	-1.049*** (0.308)	-0.499* (0.251)
부부가구	-0.903** (0.321)	0.084 (0.238)
부부자녀가구	-1.175** (0.415)	-0.466 (0.358)
연령층 (준거집단=고령층)		
청년층	-0.722 (0.453)	0.268 (0.390)
중·장년층	-0.755* (0.308)	0.565* (0.234)
성별	-1.638*** (0.266)	-0.163 (0.213)
가족관계 만족도	-1.127*** (0.126)	0.008 (0.091)
사회적 관계 만족도	-1.224*** (0.135)	0.052 (0.103)
주거환경 만족도	-0.107 (0.124)	-0.177+ (0.094)
건강상태	-1.460*** (0.118)	-0.130 (0.099)

지역구분	-0.442 (0.275)	-0.071 (0.218)
장애 여부	-0.249 (0.272)	0.024 (0.202)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고졸 이하	0.220 (0.294)	0.159 (0.221)
대학경험 이상	0.772 (0.442)	0.301* (0.343)
고용상태	-0.964*** (0.284)	-0.177 (0.261)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	-0.001 (0.002)	-0.004* (0.002)
음주정도 (준거집단=전혀 마시지 않는다)		
월 1회 이하	-0.003 (0.367)	0.305 (0.329)
월 2~4회	-0.331 (0.313)	0.390 (0.276)
주 2~3회	1.099*** (0.416)	0.692* (0.316)
주 4회 이상	1.232*** (0.462)	0.658+ (0.344)

주: ***p<0.001, **p<0.01, *p<0.05, +p<0.1.
자료: 한국복지패널 조사(1차~17차).

04 결론 및 정책제언

■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서 어떠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지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음

- 이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가구의 구성형태와 연령층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독거세대와 노인세대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이 밀집되어 있으며,[10] 공간적 고립과 입주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역에 따라 고독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주택관리공단과 지자체 사업들이 진행 중[11]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고 실태에 대한 누적집계[12]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음

■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령층과 가구구성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우울 정도와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음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짐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10)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7010009931 (2023년 11월 20일 검색).
11)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16.22009003535 (2023년 11월 20일 검색).
12) 이 연구의 〈표 2〉와 〈표 3〉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료이지 영구임대주택 전체 재고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니며, 그나마도 자살사건 가구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자아존중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에 완충작용을 하며,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사회적 역할 상실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빨래터 및 소독 살균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활동 등의 참여를 통하여 고독, 역할상실, 정신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 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은 자살생각(충동)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우울감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입주자 개인이 어떠한 맥락 안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자살생각을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고령층의 독거가구인 경우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사회적 유대 안에서 지지가 안전하다고 인지하면 공간적 배제와 고립에 대한 부적정인 생각은 감소할 것이고, 삶의 질의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자살생각 사이의 메커니즘은 미개척된 연구 분야이며, 이 연구의 종단 분석 결과는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함

-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운영,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 향상의 원스톱케어(One-Stop Care) 시스템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주거복지사를 꾸준히 확대 배치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1,285.2명으로 업무 부담이 크며,[13]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13)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7010009931 (2023년 11월 20일 검색).

-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주택관리공단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일부 사회복지관에는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시범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전국 영구임대주택 단지 사회복지관에 확대 배치해야 함
  -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정신건강 위기 가구를 집중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역시 필요함
- 사회적 고립·배제 문제와 함께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도 함께 다루어져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와 지방도시공사는 15년 이상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이며, 특히 커뮤니티 공간 강화, 임대주택 이미지 쇄신, 인지건강 디자인 특화 측면에서 중점을 둔 체인지업(Change-Up) 프로젝트도 운영 중임
  - 질 낮은 주거환경의 지속은 개인의 개선 능력, 의지 부족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후화된 승강기, 공동배관, 공용부위 설비교체 등의 시설개선과 함께 저장강박 세대에 대한 꾸준한 주거환경 개선과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 이 연구는 2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하여 우울증 병력, 가족 중 자살, 과거 열악한 주택 거주 경험, 조경 또는 녹지 등을 포함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모형에서 통제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 분석 접근법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과 자살생각 간 우울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못함

- 하지만, 고령화와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참고문헌

강정희, 박범종. 2012.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권, 1호: 1-25.

국제신문. 2023. 고립·배제에 마음도 몸도 병…고독사, 부산 평균의 18배, 10월 15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16.22009003535 (2023년 11월 20일 검색).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권, 1호: 109-133.

김영욱, 김주영, 2016.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권, 1호: 135-146.

박기덕. 2020.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 건강상태인지와 보건의료비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10권, 1호: 63-86.

박선영, 이충기. 2016. 고령세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정책논집 18권, 1호: 3-27.

아시아투데이. 2023.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건…"공공임대 입주민 대상 선제적 대응 필요", 9월 17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7010009931 (2023년 11월 20일 검색).

이경온. 2011. 영구임대주택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인식 및 사회자본 정도에 관한 연구-부천시 C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 14권, 2호: 5-63.

정은희, 신재동, 우선희, 하은솔, 김지원, 박나영, 김현규 외. 2022.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택관리공단. 내부 자료(미출판 자료).

최병숙, 박정아. 2012.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권, 5호: 75-86.

하성규, 서종녀. 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권, 3호: 159-181.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main.do;jsessionid=AFC641C3DCF481D0D2D40CC21BA919CF (2023년 11월 14일 검색).

한수정, 전희정. 2018.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6권, 2호: 313-341.

허지정, 최막중. 2013.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1권, 4호: 49-62.

Alegría, M., NeMoyer, A., Falgàs Bagué, I., Wang, Y. and Alvarez, K. 2018. Social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Current Psychiatry Reports* 20, no.11: 1-13.

Alozai, U. U. and Sharma, S. 2023. Drug and Alcohol Use. Treasure Island: StatPearls Publishing.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13263/ (accessed December 17, 202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https://www.psychiatry.org/psychiatrists/practice/clinical-practice-guidelines (accessed December 17, 2023).

Amérigo, M. and Aragones, J. I. 1997.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7, no.1: 47-57.

Barnett, A., Zhang, C. J. P., Johnston, J. M. and Cerin, E. 2018. Relationships betwee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0, no.8: 1153-1176.

Beck, A., Davidson, A. J., Xu, S., Durfee, M. J., Oronce, C. I .A., Steiner, J. F. and Havranek, E. 2017.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health system, and neighborhood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within a large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Urban Health* 94, no.6: 780-790.

Bentley, R., Baker, E., Simons, K., Simpson, J. A. and Blakely, T. 2018. The impact of social housing on mental health: Longitudinal analyses using marginal structural models and machine learning-generated we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7, no.5: 1414-1422.

Boudreaux, M., Fenelon, A. and Slopen, N. 2018. Misclassification of rental assist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Evidence and implications. *Epidemiology* 29, no.5: 716-720.

Casciano, R. and Massey, D. S. 2012. Neighborhood disorder and anxiety symptoms: New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al study. *Health & Place* 18, no.2: 180-190.

Chambers, E. C., Fuster, D., Suglia, S. F. and Rosenbaum, E. 2015. Depressive symptomology and hostile affect among Latinos using housing rental assistance: The AHOME Study. *Journal of Urban Health* 92, no.4: 611-621.

Charles, Camille Zubrinsky. 2003. The dynamics of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167-207.

Coley, R. L., Leventhal, T., Lynch, A. D. and Kull, M. 2013. Relation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 no.9: 1775-1789.

Cutler, D. M. and Glaeser, E. L. 1997. Are ghettos good or ba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no.3: 827-872.

Domènech-Abella, J., Mundó, J., Leonardi, M., Chatterji, S., Tobiasz-Adamczyk, B., Koskinen, S. and Ayuso-Mateos, J. L. et al. 2020. Loneliness and Depression among Older European Adults: The Role of Perceived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Health & place* 62: 102280.

Ejima, K., Li, P., Smith Jr, D. L., Nagy, T. R., Kadish, I., Groen, T. and Dawson, J. A. et al. 2016. Observational research rigour alone does not justify causal inference.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46, no.12: 985-993.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accessed December 14, 2023).

Fenelon, A., Mayne, P., Simon, A. E., Rossen, R. M., Helms, V., Lloyd, P. and Sperling, J. et al. 2017. Housing assistance programs and adult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7, no.4: 571-578.

Fenelon, A., Slopen, N., Boudreaux, M. and Newman, S. J. 2018. The impact of housing assistance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9, no.3: 447-463.

Fertig, A. R. and Reingold, D. A. 2007. Public housing, health, and health behaviors: Is there a connec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6, no.4: 831-860.

Freeman, L. and Li, Y. 2014. Do source of income anti-discrimination laws facilitate access to less disadvantaged neighborhoods? *Housing Studies* 29, no.1: 88-107.

Garg, A., Burrell, L., Tripodis, Y., Goodman, E., Brooks-Gunn, J. and Duggan, A. K. 2013. Maternal mental health during children's first year of life: Association with receipt of Section 8 rental assistance. *Housing Policy Debate* 23, no.2: 281-297.

Garnham, L. and Rolfe, S. 2019. *Housing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Evidence from the Housing through Social Enterprise study.* Glasgow: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Howden-Chapman, P. L., Chandola, T., Stafford, M. and Marmot, M. 2011. The effect of housing on the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The impact of lifetime housing history in Whitehall II. *BMC Public Health* 11, no.1: 1-8.

Jones, R. W. and Pridemore, W. A. 2016. The U.S. housing crisis and suicide rates: An examination of total-, sex-, and race-specific suicide rates. *Housing Studies* 31, no.2: 173-189.

Kalousová, L. and Evangelist, M. 2019. Rent assistance and health: Findings from Detroit. *Housing Studies* 34, no.1: 111-141.

Kim, Daniel. 2008. Blues from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Epidemiologic Reviews* 30, no.1: 101-117.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and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 no.2: 179-193.

Kottke, T., Abariotes, A. and Spoonheim J. B. 2018. Access to affordable housing promotes health and well-being and reduces hospital visits. *The Permanente Journal* 22, no.1: 17-79.

Law, C. K., Kõlves, K. and De Leo, D. 2016. Influences of population-level factors on suicides in older adults: A national ecological study from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1, no.4: 384-391.

Lee, T. H., Park, E. C., Kim, W., Kim, J., Shin, J. and Kim, T. H. 2016. Depressive symptoms of house-poor persons: Korean panel data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2, no.6: 569-577.

Liu, J., Lewis, G. and Evans, L. 2013. Understanding aggressive behaviou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no.2: 156-168.

Liu, S., Ouyang, Z., Chong, A. M. and Wang, H. 2018. Neighborhood environ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residential care h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87, no.3: 268-288.

Maji, Sucharita. 2018. Society and 'good woman': A critical review of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4, no.4: 396-405.

Manturuk, Kim R. 2012. Urban homeownership and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ense of control. *City & Community* 11, no.4: 409-430.

Marco, M., Gracia, E., López-Quílez, A. and Lila, M. 2018. What calls for service tell us about suicide: A 7-year spatio-temporal analysis of neighborhood correlates of suicide-related calls. *Scientific Reports* 8, no.1: 6746.

Mason, K. E., Baker, E., Blakely, T. and Bentley, R. J. 2013. Housing affordability and mental health: Does the relationship differ for renters and home purchasers? *Social Science & Medicine* 94: 91-97.

Meltzer, R. and Schwartz, A. 2016. Housing affordability and health: Evidence from New York City. *Housing Policy Debate* 26, no.1: 80-104.

Meth, P. and Charlton, S. 2017. Men's experiences of state sponsored housing in South Africa: Emerging issues and key questions. *Housing Studies* 32, no.4: 470-490.

Pak, T. Y. and Choung, Y. 2020.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risk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247: 112815.

Perreault, K,, Riva, M., Dufresne, P. and Fletcher, C. 2020. Overcrowding and sense of home in the Canadian Arctic. *Housing Studies* 35, no.2: 353-375.

Phillips, D. R., Siu, O. L., Anthony, G. O. and Cheng, K. H. 2005. The impacts of dwelling conditions on older persons' psychological well-being in Hong Kong: The mediating rol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0, no.12: 2785-2797.

Regoeczi, Wendy C. 2008. Crowding in context: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tial responses of men and women to high-density living environm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9, no.3: 254-268.

Reiss, F., Meyrose, A. K., Otto, C., Lampert, T., Klasen, F. and Ravens-Sieberer, U. 2019. Socioeconomic status, stressful life situations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ults of the German BELLA cohort-Study. *PloS One* 14, no.3: e0213700.

Ren, H., and Folmer, H. 2017.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urban China: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Urban Studies* 54, no.6: 1407-1425.

Richardson, R., Westley, T., Gariépy, G., Austin, N. and Nandi, A. 2015. Neighborhood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 no.11: 1641-165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 no.1: 407-412.

Sorokowski, P., Karwowski, M., Misiak, M., Marczak, M. K., Dziekan, M., Hummel, T. and Sorokowska, A. 2019. Sex differences in human olfaction: A meta-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10: 242.

Stack, S. and Wasserman, I. 2007. Economic strain and suicide risk: A qualitative analysi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 no.1: 103-112.

Üstün, T. B. and Ho, R. 2017.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Principles and concepts. In ed. Quah, Stella 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Health (Second Edition)*: 51-57. Oxford: Academic Press.

Wang, X. and Cheng, Z. 2020. Cross-sectional studies: Strengths, weaknesses, and recommendations. *CHEST* 158, no.1: 65-7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u, Y., Kang, R., Yan, Y., Gao, K., Li, Z., Jiang, J. and Chi, X et al. 2018. Epidemiology of schizophrenia and risk factors of schizophrenia-associated aggression from 2011 to 2015.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cal Research* 46, no.10: 4039-4049.

Yoon, T. H., Noh, M., Han, J., Jung-Choi, K. and Khang, Y. H. 2015. Deprivation and suicide mortality across 424 neighborhoods in Seoul, South Korea: A Bayesian Spati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0, no.8: 969-976.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 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044-960-0438, bbmoon@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연 구 진 박기덕
발 행 일 2023년 12월 21일
발 행 인 심교언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3,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KRIHS 국토연구원